



12면

고향출도문화계들 '고향으로'

전주매일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음 6월 13일) 제28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단 태양광 제조기업 유치

전북도-부안군-경일그린텍-이엠퍼스트, 투자협약 체결

총 40억원 투자 에너지저장장치·조명기구 생산 공장 건립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 에너지 사업 추진 '촉진제' 역할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제조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부안군 경일그린텍(주) (주)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일그린텍(주)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8214㎡ 부지규모에 3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또 (주)이엠퍼스트는 1.443㎡ 부지규모에 1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일그린텍(주)과 (주)이엠퍼스트는 태양광 관련 사업의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연내 공장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일그린텍(주)는 이번 투자로 1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에너지저장장치 5,000대 생산에 따른 4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이엠퍼스트는 이번 투자로 2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공기조화기 5,000개 및 태양광LED 조명기구 10만개 생산에 따른 3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초기 투자는 소규모이지만 추후 시장 확대에 따른 증설 투자 및 생산량 증대로 매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경일그린텍(주)와 (주)이엠퍼스트의 투자는 추후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의 분업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 분야의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풍력 분야의 한국재료연구원, 연료전지 분야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3GW 규모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무엇보다 투자에 목말라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북도는 양 기업체 및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부안군, 경일그린텍(주), (주)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일그린텍(주)와 (주)이엠퍼스트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공장과 LED 조명기구 생산 공장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폭폭 찌는 가마솥 더위... 전북 '비상'

도, 재난안전본부 비상 1단계 발령... 최고 35℃ 이상 지속 예고

폭염 피해 예방 위해 취약계층 관리·취약지역 예찰 등 총력

21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8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 고창, 부안)이 폭염경보 발효 중이고, 6개 시·군(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도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 10시에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폭염대응 주요 14개 협업부서와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폭염취약계층 관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폭염 관리, 농축수산 피해예방, 구조구급 대응태세 등 분야별 폭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기상청의 21일 오전 5시 단기 예보 상 7개 시·군이 3일이상 최고기온이 35℃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주요 14개 부서 및 시·군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폭염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소관부서별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와 취약지역 예찰

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일 시·군별 마을방송 문자방송 등을 실시, 폭염 취약 시간에 주민들에게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도 TV, 신문사를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통한 폭염취약계층 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90개소의 폭염대기 태세를 점검하는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무더위쉼터(실내 5,372개소, 야외 471개소)를 운영하고, 그늘막 688개소에 여커튼 188개소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은 물론, 필요 시 시·군 여건에 따라 살수차 운행 및 얼음비치 등의 추가 조치를 실시, 폭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건설분야에서도 야외 근로자들에 대해 무더위 휴식제를 권장하고, 야외 건설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및 점검을 통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운영집행자는 33명으로 사망자는 없으며,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폭염상황에 따른 비상태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축산피해는 75건으로 집계돼 축산분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폭염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도민 스스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낮 시간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양산과 물병을 준비하는 등 폭염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27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기금 결성

전북대, 8년 운영 75% 이상 창업기업에 투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창업기업을 돕고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7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 기금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기술주주회사가 최근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원하는 한국모태펀드 2021년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대가 조성하는 27억원 규모는 올해 이 사업 제1유형인 신규 대학 운운사 중 최대 규모다.

전북대학교 제2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인 전북대 기술주주회사와 유관책임조합원(LP)인 전주대 기술주주회사

그리고 전주소재 민간 벤처캐피탈인 스노우볼 벤처스와 함께 대학 내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 창업펀드다.

투자 기간 3년을 포함 총 8년 동안 운영되며, 교원 및 학생창업·자회사 등 대학 창업기업에 총액의 75% 이상을 투자해 대학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 창업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출자사업 선정으로 전북대학교 기술주주는 지난 3월 결성한 전북대학교 제1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과 별개로 27억원의 신규 자금을 운용하게 돼 대학 창업에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조기환 연구부총장, 조재영 산학협력처장, 전주대 변주승 산학협력단장, 스노우볼벤처스 남인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결성총회를 갖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날 결성총회에서는 조합 및 사업계획의 승인과 투자 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동원 총장은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초기 대학창업 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했다"며 "이를 통해 실현된 창업과 투자를 연계, 전북대학교를 기술혁신과 대학 발 혁신창업의 전진기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